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아라야, 여의주를 부탁해!
수상내역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작가	권초롱, 김채원, 장하은
소재	돈질산 도깨비, 용
기획의도	<p>울산시의 상징인 '용'과 흥미로운 돈질산 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바다, 하늘, 인간, 고래 등 모든 자연의 기운이 만나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인 울산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한다.</p>
등장인물	<p>아라 : 호기심 많은 12살 소녀. 마음대로 계절을 바꿔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뉘우치질 않아 옥황상제에 의해 옥에 갇혀 있다가, 후에 이무기인 마루를 돕는 명을 받게 된다.</p> <p>마루 : 용이 되어 승천하려는 이무기 삼형제 중 막내. 두 형과 달리 사고로 여의주를 잃어버리고 승천에 실패한 후 다시 여의주를 찾아 승천하려 한다.</p> <p>꼬꼬지 : 울산의 토박이 도깨비. 승천에 실패한 마루를 보살피고 돕는다.</p> <p>염포 : 탐관오리인 고을 원님. 원귀가 된 월앵의 청에 의해 도깨비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악귀가 되어 아라와 마루를 방해한다.</p> <p>월앵 : 아라의 엄마, 염포의 수청을 거부하고 자결한 후 원귀가 되나 옥황상제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다.</p> <p>호동 : 아라의 아빠, 월앵의 소식을 듣고 따라 자결한다. 역시 옥황상제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다.</p> <p>규, 방이 삼형제, 물고기들, 귀신고래, 농장할머니 등</p>

< 아라야, 여의주를 부탁해! >

#1. 먼 옛날 울산 돌질산 아래 어느 고을의 정자

옛날 어느 먼 옛날, 울산 어느 고을에는 해금 연주가 일품인 미모의 관기 월앵 남자가 살고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뜬 깊은 밤, 월앵 남자는 달빛을 받으며 정자아래서 사랑하는 호동도령을 기다리고 있다.

월앵: (어둠 속을 바라보며)호동도련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호동: (멀리서 달려오며)남자! 월앵 남자! 늦어서 미안하오. 보고 싶었소.

월앵: (수줍게 미소 지으며)저는 도련님의 얼굴이 아른거려 가야금 연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동: (함박웃음 지으며)하하! 남자의 가야금을 들으며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을 그리하고 싶소. 월앵, 나와 혼인하여 주겠소? 그대를 사랑하오.

월앵: (눈물을 흘리며)도련님.....! 그리하겠습니다. 저 역시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호동: (월앵을 껴안으며)고맙소 남자!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2. 먼 옛날 울산 돌질산 아래 어느 고을의 관아

호동은 과거를 보러 먼 길을 떠나고, 고을에는 새로운 원님 염포가 부임한다. 염포는 붓짐을 풀자마자 고을의 관기들을 관아 마당에 불러 모은다.

염포: (거만하게 관기들을 둘러보며)전부 대령한 것이냐? 어디보자..... (한참 둘러보며)거기 맨 뒤에서 두 번째, 다홍치마. 이리 앞으로 오너라.

월앵: (자신을 가리키며)부사어른,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포: (고개 끄덕이며)그래, 그래~ 어서 이리 오라니까? (탐욕스런 얼굴로)오늘 밤은 너와 함께 보내련다. 어서 가서 단장을 하고 오너라. 흐흐흐흐흐. 곱구나, 고와. 너만 보이더구나. 굳게일학이야! 으흐흐흐흐.

#3. 염포의 방

강제로 염포의 방에 들여진 월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포는 월앵에게 다가간다.

염포: (월앵을 끌어당기며)왜 그리 멀리 있느냐! 여기 가까이에서 가야금을 타거라.

월앵: (굳은 얼굴로)부사어른, 저는 혼인을 약조한 몸입니다. 부디 가야금 연주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염포: (비웃으며)혼인? 하하하하하. 너는 관기이다. 관기는 관아에 묶인 몸, 나는 관아의 주인! 따라서 너는 나의 것이지. 너는 나의 수청을 들어야한다.

월앵: (애원하며)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다른 관기를 택하여 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염포: (버럭 소리를 지르며)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너여야 해! (월앵에게 다가가며)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 생각은 싹 사라지게 해주지.

월앵: (결연한 얼굴로)나으리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눈을 질끈 감고) 응!

염포의 수청을 거부하던 월앵은 결국 혀를 깨물어 자결을 하여 원귀가 된다.

#4. 먼 옛날 울산 돌질산 아래 어느 고을의 관아

원귀가 된 월앵은 돌질산 도깨비 풍물패를 찾아가 자신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 놓는다. 남자의 딱한 사연을 들은 도깨비 수장은 도깨비 무리를 이끌고 염포를 찾아간다.

도깨비 수장: (우렁찬 목소리로)네 놈이 염포더냐?

염포: (잠에서 깨어 놀라며)헉!! 뭐...뭐냐? 여...여기가 어디라고! 썩 나가지 못할까?

도깨비 수장: (호통 치며)죄 없는 꽃 같은 남자를 그리 만든 버리지 같은 네 놈을 돌질산의 터주 대감인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지. (방망이를 휘두르며)죽어서 네 죄를 갚거라!

한 편, 고을로 돌아온 호동은 월앵의 소식을 듣고 역시 자결을 하여 남자의 뒤를 따른다.

#5. 천계

월앵과 호동의 딱한 사연을 지켜 본 옥황상제는 그 둘을 하늘로 불러 못 다한 사랑을 이루게 한다.

하늘에서의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호동: (걱정하는 목소리로)부인, 조금만 힘을 내시오! 거의 다 되었소! 조금만 더!

월앵: (고통스러워하며)으으읍. 흐으으읍. 아아아아악!

월앵이 비명을 지르자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천계에 울려 퍼진다.

#6. 11년 후 - 천계 사계궁

월앵과 호동의 딸 아라는 어느 새 12살 소녀가 되었다. 호기심 많은 아라는 지상의 사계절을 관장하는 천계의 사계궁에 몰래 숨어든다.

아라: (두리번대며)휴~ 감관님이 안계시네! 해해 신난다! 어? 이건 뭐지? 계절일지? (일지를 살펴보며)아하! 여기에 기록한 대로 지상의 계절이 움직이는 거구나!!

아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함박눈이 내리도록 일지 두 장을 모두 채워 넣었다.

아라: (뿌듯해하며)이제 온 세상이 하얗게 되겠지? 분명 인간들도 좋아 할 거야! 함박눈만큼 아름다운 건 없으니까! 에헤헤~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7. 천계

계절일지를 채워 넣은 다음날, 아라는 진노한 옥황상제 앞에 불려간다.

옥황상제: (분노에 찬 목소리로)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 어리석은 것! 어찌 계절일지에 그런 짓을 했던 말이나! 한 번 적어 넣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지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저는 그냥...예쁜 눈이 내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요. 분명 지상세계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옥황상제: (호되게 꾸짖으며)어허! 내 할 말을 잃게 만드느구나! 곡식이 여물어가는 9월에 일주일 내내 눈이 내리면, 세상이 과연 아름다울까? 동식물은 모두 얼어 죽고, 모든 자연의 섭리가 파괴되었단 말이다! 감관! 지금 저 아래가 어떤 지경인지 말해보시오.

계절궁 감관: (머리를 조아리며)예. 곡식들은 냉해를 입었고, 동물들은 동사했으며, 인간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제 불찰입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옥황상제: (아라를 보며)이제 알겠느냐? 네가 한 짓의 심각성을?

아라: (당돌하게)산을 없애고 바다를 더럽히는 인간들 보단 제가 낫지 않나요? (주위를 둘러보며)아래를 보세요! 더러운 모든 게 하얀 눈에 덮여서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운걸요?

옥황상제: (더욱 진노하여)어허!! 그래도!!! 여봐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까지 이 아이를 옥에 가두어라!

#8. 돌질산

천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임진(壬辰)날, 진(辰)시를 맞아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수련을 마친 무룡산, 가지산, 돌질산의 이무기 삼형제는 울산의 수호용이 되어 승천할 채비를 마친다. 무룡산, 가지산의 형님들이 승천한 후, 돌질산의 막내 이무기 마루가 승천하려는 찰나 엄청난 굉음이 들린다.

마루: (여의주를 놓치며)으아악! 으.....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앗! 내 여의주...!!! 으으으....
(정신을 잃는 마루)

마루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의주는 온데간데없고 돌질산은 두 동강이 나있다. 마루의 옆에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는 도깨비가 있을 뿐이다.

꼬꼬지: (걱정스런 얼굴로)정신이 들어? 내 이름은 꼬꼬지야. 갑자기 우리 집이 무너져서 도망치다가 널 발견했어. 저 밖은 위험해서 동굴로 널 옮겼어.

마루: (화들짝 놀라며)호...혹시 구슬 못 봤니? 아까 큰 소리가 났을 때 잃어버렸어. 아주 중요한 건데....

꼬꼬지: (가우뚱하며)구슬? 그런 건 없었어. 그나저나 너 많이 아파 보여.

마루: (망연자실하며)으흐흐흐.. 어찌면 좋아... 곧 천계의 문이 닫힐 텐데... 왜 하필 오늘!!

꼬꼬지: (깜짝 놀라며)천계의 문? 구슬? 아.... 네가 바로 돌질산의 이무기구나! 오늘이 승천하는 날이었어? 설마 그 잃어버린 구슬이 여의주니....?!

마루: (눈물 흘리며)응... 난 이제 다시 60년을 기다려야해... 천계의 문은 천상의 시간으로 임진(壬辰)날 진(辰)시에만 열리거든... 하늘의 시간으로는 60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만, 천상의 하루는 이곳의 일 년과 같아. 어서 용이 되어 형님들과 함께 울산을 지켜야하는데.... 으흐흐흐흐

꼬꼬지: (홀쩍이며)울지마....네가 그러니까.....나도 슬프잖아..... 으아아아앙....

친구가 된 꼬꼬지의 보살핌 아래 한 동안 동굴 속에서 쉬며 기운을 회복한 마루는 여의주를 찾으러 나선다. 파괴된 돌질산을 살살이 뒤져보았지만 여의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꼬꼬지: (조심스레)마루야. 오늘도 실패야?

마루: (기운 없는 목소리로)응.... 아무래도 공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 내일부터는 산 아래로 내려가 봐야겠어.

마루는 돌질산이 파괴되는 일을 겪은 후 처음으로 산 바깥의 세상으로 나간다. 마루의 귀에는 도시의 커다란 소음이 여의주를 잃어버린 순간 들었던 굉음으로 들린다. 그리고 마루는 정신을 잃는다.

마루: (힘겹게 일어나며)으...머리야....

꼬꼬지: (걱정하며)괜찮아? 산 아래에 네가 쓰러져 있더라. 그날 생각이 나서 얼마나 무서웠다구. (울먹이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마루: (곰곰이 생각하며)나도 잘 모르겠어. 산 아래에 내려가니 무서운 소리들이 들렸어. 그리고는 생각이 안나. (두려움에 몸서리치며)바깥세상은 너무 무서워..... 다시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꼬꼬지: (심각하게)마루야. 그럼 여의주는? 여의주는 어떻게 찾아?

마루: (자포자기하며)나도 모르겠어.....

마루와 꼬꼬지는 이 후 60년 가까이를 정다운 친구로 지낸다.

#9. 천계

한 편, 하늘에서 마루를 지켜 본 옥황상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옥황상제: (혼잣말로)마루가 큰 상처를 받았구나. 여의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하거늘..... 천계의 법 상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찌하면 좋을꼬? (깊이 생각하다 무릎을 탁치며)여봐라~ 게 있느냐? 당장 아라를 데려오너라.

꽤 긴 시간 옥에 갇혀있던 아라는 다시 옥황상제 앞에 불려왔다.

옥황상제: (근엄하게)많이 반성 하였느냐? 내 너에게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고 불렀느니라. 저 아래 보이는 울산에 이 두루마리를 갖고 내려가 마루라는 이무기를 만나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 올 수 있도록 돕거라. 직접 지상에 내려가 보면 너도 깨닫는 것이 있겠지.....

아라: (풀이 죽어서)예... 열심히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아라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월앵의 이름이 새겨진 해금과 옥황상제의 두루마리를 갖고 지상으로 내려온다.

#10. 동질산

마루의 동굴에 도착한 아라는 마루, 꼬꼬지와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아라는 마루가 여의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라: (재촉하며)그럼 어서 여의주를 찾으러 가자! 다음 천계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난 꼭 널 데리고 하늘로 가야해. 당장 일어나지 않고 뭐해?

마루: (머뭇거리며)저.....저기, 도와주러 온 건 고마운데...나는 바깥세상엔 못 나가. 커다란 도시의 소음을 들으면 정신을 잃어...내가 아픈 기억이 있어서...미안해.....

아라: (곰곰이 생각하며)그래? 흠..... 소리가 문제구나. 그럼 잠시만 기다려!

갑자기 밖으로 나간 아라는 한참 후에야 동굴로 다시 돌아온다. 뿌듯한 얼굴로 아라는 마루에게 소라껍데기 두 개를 내민다.

꼬꼬지: (의아해하며)웬 소라껍데기야?

아라: (뿌듯해하며)귀에 써! 그럼 네 귓가에는 잔잔한 파도소리만 들릴 거야. (마루의 귀에 씌워주며)어때? 내 말이 맞지?

마루: (미소 지으며)응! 정말 그렇다~ 바깥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마루와 꼬꼬지는 아라와 함께 여의주 찾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길을 나서기 전 아라 일행은 옥황상제의 두루마리를 펼쳐보는데, 그곳에는 아리송한 문장이 적혀있다.

아라: (두루마리를 보며)거북과 바다와 보석들의 기운이 합하여 첫 번째 태양빛을 받을 때, 용의 여의주는 완성된다.....?

마루: (뭔가 생각난 듯이)용의 여의주! 옥황상제님께서 여의주에 대한 수수께끼를 주셨구나. 이 수수께끼를 풀면 여의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하며)거북? 바다? 흠.....

꼬꼬지: (기억을 더듬으며)거북이? 나 울산에서 가장 오래 산 거북이 알아! 혹시 거북 할아범한테 여의주가 있는 게 아닐까?

아라: (맞장구치며)그렇지도 몰라! 거기가 어디야? 어서 가보자~

꼬꼬지는 도깨비감투로 모습을 감추고 이무기인 마루는 이목을 끌지 않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소라껍데기로 도시의 소음을 가린 채로 모험을 떠난다.

#11. 울산 거리

한 편, 도깨비 수장에게 죽임당한 염포는 엄청난 악귀가 되어 잡귀들을 부리며 구천을 떠돌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셀 수 없는 세월이 지났지만 염포는 갑자기 월앵의 기운을 느끼고 그 곳으로 향한다.

아라: (신이 나서)우와~ 지상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시끌벅적하다. 매일 위에서 내려다만 보니까 잘 몰랐는데~ (마루를 톡 치며)마루야~ 어때? 건달만하니?

마루: (고개를 끄덕이며)응~ 파도소리가 다른 소음을 덮어줘. 이거 참 좋다. 헤헤~

아라: (웃으며)다행이다~!

꼬꼬지: (두리번대며)애들아 이쪽이야. (장난스럽게)인간들 눈에는 내가 안보이니까 너희들 나랑 웃고 떠들면 엄청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걸? 킁킁

즐겁게 거북 할아범을 찾아가는 아라 일행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염포였다.

염포: (혼잣말로 중얼대며)월앵의 기운이 느껴져...뭘지....? 저 꼬맹이가 메고 있는 해금! 월앵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 더 가까이 가서 엿들어야겠어.

염포는 아라 일행이 눈치 채지 못하게 미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꼬꼬지: (해금을 가리키며)아라야, 근데 뒤에 멘 그건 뭐야?

아라: (해금을 소중히 만지며)해금. 이건 아빠가 우리 엄마를 위해 만든 건데, 엄마가 내게 물려 주신거야. 천계에서 내려올 때 갖고 왔어. 애랑 나랑은 일심동체랄까? 헤헤. 이걸 갖고 있으면 어디에서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같거든~

마루: (놀리듯이)너 아직 애기구나~ 엄마아빠 보고 싶어서 어떡해? 킁킁

아라: (씩씩대며)그게 아니잖아! 마루 너~~!!

티격태격 다투며 길을 걷는 아라와 마루를 보며 염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염포: (음흉하게 중얼거리며)월앵과 호동이 천계로 갔다더니....그게 사실이었군....! 그럼 저 계집아이가 월앵과 호동의 딸? 그렇다면 이 염포가 가만있을 순 없지. 드디어 그 둘을 갈가리 찢어 놓을 구멍이 보이는 것 같은데? 킬킬킬킬킬....!

월앵과 호동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더욱 커진 염포는 그 둘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아라 일행을 미행한다.

#12. 해변 - 규의 집

울산에서 가장 오래 산 거북 '규'를 찾아 온 아라, 마루, 꼬꼬지는 규에게 수수께끼 속의 거북에 대해 설명하고 여의주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

마루: (공손하게)거북 할아버지. 혹시 여의주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꼬꼬지: (기대에 차서)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찾아 왔어요. 여의주 갖고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할아버지는 아는 게 많잖아요~

규: (느릿느릿하게)으응? 여...의주? 내가 어찌 그리 귀한 물건을 갖고 있겠는가..... 여의주는...하늘의 허락을 받아 천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하디귀한 것인데.....

아라: (실망하며)네? 할아버지한테 없어요? 그럼 이 거북은 뭘 뜻하는 거야.....(마루를 쳐다보며)아휴! 여의주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니?

규: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아가씨... 하늘의 허락 없이 천계의 문에 발을 들인 자는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야.....!

말을 마친 규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염포는 아라 일행이 여의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염포: (고개를 끄덕이며)오호라~! 여의주가 있으면 천계로 갈 수 있다는 말이군! 느낌이 좋았던 말이야, 월앵과 호동을 짓밟을 수 있는 통로를 드디어 찾았어. 킬킬킬. 여의주를 저 것들보다 먼저 찾으려면 일단 수수께끼를 알아야겠군.

염포가 손가락을 세 번 튕기자 돼지의 모습을 한 잡귀 세 마리가 나타났다.

염포: (짐짓 근엄한체하며)일방, 이방, 삼방. 너희 방이 삼형제가 드디어 날 위해 할 일이 생겼다. 저~기 저 꼬맹이들 보이지? 저 애들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훔쳐오너라. 일 처리 똑바로 하도록. 크흠.

방이 삼형제: (염포에게 절을 하며)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으리~! 꿀꿀!

한 편, 한참을 생각하던 규는 드디어 입을 연다.

규: (자신감 없이 느릿하게)내...생각엔..말이야. 수수께끼의‘거북’이 뜻하는 것은...내가 아니라 반구대가 아닐까....하네.

꼬꼬지: (눈을 반짝이며)그래! 바로 그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활기에 차서)마루야, 아라야! 어서 이동하자. 뭘가 감이 왔어!

마루: (열의를 보이며)정말? 알았어. 가기 전에 수수께끼 한 번 더 읽고 가자.

아라: (두루마리를 펼치며)그래. 수수께끼를 확실히 머릿속에 넣자!

아라가 두루마리를 펼친 순간 갑자기 검은 형체들이 아라 일행에게 달려든다. 염포의 명을 받고 덤비는 방이 삼형제였다. 방이 삼형제는 두루마리를 빼앗으려 애쓰지만 마루와의 몸싸움에서 패한 그들은 두루마리의 찢어진 귀퉁이만을 갖고 도망친다.

아라: (겁에 질려서)저.. 저게 뭐야? 방금 뭐였니?

마루: (숨이 턱까지 차서)헉...헉...헉. 수수께끼 두루마리를 빼앗으려 했어. 누군가 여의주를 노리고 있는 걸까?

꼬꼬지: (주위를 경계하며)분명 돼지들이었어. 다시 올지도 몰라. 어서 여길 떠나자!

방이 삼형제가 찢어간 수수께끼의 일부에는 ‘바다’라는 단어만 쓰여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엮포는 방이 삼형제는 아라 일행을 쫓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바다’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러 유유히 떠났다.

#13. 반구대

반구대에 도착한 아라, 마루, 꼬꼬지. 반구대는 커다란 거북이 모양의 섬으로, 울산의 12경 중 하나이다.

아라: (실망하며)거북이가 어딴어? 이게 뭐야~ 그냥 바윗덩어리구만! 히잉...

마루: (주위를 둘러보며)그래~ 이번에도 잘못 짚은 것 같다. 거북이 그림자도 안보여.

그때 꼬꼬지는 도깨비구름을 불러내 아라와 마루를 구름위에 태운다.

아라: (신기해하며)이야~ 너 별걸 다 할 줄 안다!

꼬꼬지: (우쭐해하며)킁킁. 이정도 쯤이야! 자 구름아~ 위로, 더 위로 올라가거라!

그러자 그들을 태운 구름이 반구대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 올라간다.

마루: (감탄하며)와아아! 거북이다! 거북이야. 아래를 봐~ 아라야!!

아라: (아래를 보며)어머나!! 진짜 거북이네~ 그냥 바위가 아니었구나! 거북이가 납작 옆드려 있는 것 같아~

꼬꼬지: (신이 나서)멋지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

반구대를 한참 구경한 아라, 마루, 꼬꼬지는 기암절벽으로 다가간다. 기암절벽과 계곡천이 이루어 내는 아름다운 풍경에 그들은 한 동안 넋을 잃는다.

아라: (혼잣말로 중얼대며)지상세계는 더러운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마루: (정신을 차린 듯이)참, 우리 어서 여의주를 찾아야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라: (고개를 끄덕이며)맞아, 간만에 마루가 바른 말 하네! 근데 어디에서 찾지?

꼬꼬지: (계곡을 가리키며)저쪽에 폭포가 있는데 거기 사는 물고기들한테 물어볼까?

마루: (곰곰이 생각하며)그래,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어디서부터 찾아야할지 모르겠어. 물고기들한테 가보자!

#14. 반구대 폭포

아라, 마루, 꼬꼬지는 반구대 깊은 폭포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간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꼬꼬지: (애타게 부르며)물고기야! 물고기야!! 다들 어디 갔니? 잠깐만 나와 줘~!

아라: (짜증내며)물고기야!!!! 제발 좀 나와!! 아휴~ 목 아파. 난 좀 쉬어야겠어.

한참을 소리치자 꼬마물고기 한 마리가 힘없이 헤엄쳐 다가왔다.

꼬마물고기: (기운 없는 목소리로)무슨 일이니? 조용히 좀 해줘. 우리 마을은 지금 추모식 중이란 말이야.

마루는 꼬마물고기에게 아라, 꼬꼬지와 자기를 소개한다.

마루: (미안해하며)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니? 소란 피워서 미안해...

아라: (조급해하며)그래, 추모식 중이구나. 근데 우리가 좀 바쁘거든~ 너 혹시 여의주 본 적 있니?

마루: (나무라는 듯이)아라야, 우리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물고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이따가 추모식 마치고 물어볼게.

아라: (뽀루통해서)헛, 네~네~ 잘난 이무기님. (물고기에게)시끄럽게 해서 미안.

꼬꼬지: (걱정스런 얼굴로)그런데 물고기야, 마을에 무슨 일 있니? 너도 안색이 안 좋아.

꼬마물고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얼마 전에 눈이 계속 내렸잖아.... 그때 물이 갑자기 너무 차가워져서 많은 물고기들이 목숨을 잃었어.... (울음을 터뜨리며)우리 할머니도...흑흑...그때 돌아가셨어...내 가장 친한 친구는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어....흑흑...

마루: (위로하며)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을 내 물고기야....

꼬마물고기의 사연을 들은 아라는 홀로 생각에 잠긴다.

아라: (마음속으로)내가 내린 눈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었다고....? 따뜻하고 포근해보였는데...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진짜 나 때문인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라: (머뭇거리며)저...물고기야, 혹시 괜찮다면 추모식에서 내가 추모 곡을 연주해도 될까?

꼬마물고기: (홀쩍이며)정말? 다른 물고기들도 좋아할 거야. 그럼 부탁해. 너희 소리칠 때 보니까 아래까지 소리가 잘 들리더라. 그럼 나는 아래에 내려가 추모식에 참석하고 다시 올게. 조금 이따 보자!

꼬마물고기가 헤엄쳐 내려가자 아라는 해금을 꺼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연주하기 시작한다. 한 동안 아름다운 해금 선율이 계곡을 가득 채웠다. 연주가 끝나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힘차

게 해엄쳐 올라오기 시작했다.

꼬마물고기: (힘찬 목소리로)정말 이상해! 아라의 해금 연주를 들으니 힘이 마구 솟아나!! 내 친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어떻게 된 일이야?

노인물고기: (건강한 목소리로)아까는 해엄칠 기운도 없었는데, 해금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해엄쳐 왔단다. 우리 물고기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운이 넘쳐나!

아줌마물고기: (빙글빙글 해엄치며)거기 아가씨의 해금 연주가 특별한 것 같아. 난 지금 아이 낳기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 몸이 아주 가뿐해!

마루: (신기해하며)아라야! 네 해금연주는 뭔가 생명을 치유하는 힘이 있나봐! 봐~ 물고기들이 모두 생명력이 넘쳐!

아라: (어리둥절해하며)내가 해금을 좀 잘 켜긴 하지만.....그....그런가? 헤헛

꼬마물고기: (기뻐하며)정말 고마워. 참, 아까 물어보려던 게 뭐니?

꼬꼬지: (진지하게 모두에게)우리는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고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여의주를 본 적 있나요?

꼬꼬지의 말을 듣고 물고기마을의 주민들은 곰곰이 생각한다. 그때 노인물고기가 입을 연다.

노인물고기: (기억을 되살리며)우리 가문에는 아주 오래된 구슬조각이 있어.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보관해 놓으셨다지. 그런데 그게 여의주의 일부인지는 모르겠어.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게~

노인물고기는 힘차게 마을로 해엄쳐간다. 잠시 후 구슬조각을 입에 문 노인물고기가 돌아와 마루에게 조각을 건넨다.

노인물고기: (조각을 건네며)자, 한 번 보게. 그것이 여의주의 일부라면 주인을 알아보겠지. 꺾 꺾.

마루가 구슬조각을 건네받자, 조각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마루: (확신에 찬 목소리로)맞아요! 제 여의주의 일부예요. 그때 여의주가 산산조각이 났구나.... (아라와 꼬꼬지를 보며)수수께끼는 여의주 조각들이 있는 곳을 나타내나봐!

노인물고기: (인자하게)자 그럼 어서 떠나시게. 귀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마음이 뿌듯하구먼.

마루: (매우 고마워하며)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노인물고기: (고마워하며)우리야말로 고맙네. 저 아가씨의 해금연주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다시 활기를 얻지 못했을 지도 몰라.

아라: (멋쩍어하며)아니예요, 저희가 감사해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꼬꼬지: (모두에게) 고마워요! 안녕~!

마루는 여의주 조각을 아라의 복주머니 속에 넣어둔다.

#15. 반구대

깊은 계곡에서 나온 아라, 마루, 꼬꼬지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꼬꼬지: (반구대를 가리키며)반구대에서는 원시자연을 느낄 수 있어.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전에 만들어진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공룡 발자국도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하고 가야지?

아라: (궁금해 하며)공룡발자국? 우와~ 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가자, 가자!!

마루: (못마땅해 하며)얼른 여의주 다음 조각 찾아야지. 그 이상한 돼지 삼형제도 마음에 걸리고.....

아라: (마루를 흘겨보며)야! 너 동굴 속에서 안 나오던 애 맞니? 발자국 잠깐 보고 간다고 뭐 큰일이 생긴다고. 나도 여의주 조각 빨리 찾고 싶어, 근데! 난 궁금한 건 못 참아! 안 보고 가면 너 소라껍데기 뺏는다?

마루: (손사래를 치며)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서 보고가자!

아라, 꼬꼬지: (손뼉 치며)이~얏호!

공룡 발자국을 신기한 듯 구경하는 아라, 마루, 꼬꼬지.

아라: (눈을 반짝이며)와~ 정말 크다! 이 발자국 좀 봐. 공룡은 대체 얼마나 컸을까?

마루: (손가락질 하며)근데 이것 봐, 이렇게 작은 공룡도 있었나봐. (작은 발자국을 만져보며) 이건 꼭.....방금 생긴 것 같은데???

꼬꼬지, 아라: ?!!

그때 갑자기 꿀꿀대는 소리와 함께 방이 삼형제가 여의주 조각이 담긴 아라의 복주머니를 덮쳤다. 갑작스런 공격에 아라 일행은 혼비백산한다.

일방: (큰소리로)꿀꿀꿀. 이방이, 삼방이 각자 한 명씩 맡아! 쾅쾅.

이방: (불평하며)나 배고파서 힘없다. 꿀!

마루: (다급하게)꼬꼬지! 아라를 보호해!!!

마루는 일방, 이방, 삼방 형제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사이 아라는 가까스로 꼬꼬지가 불러낸 도깨비구름위에 올라타 여의주 조각을 무사히 지켜낸다.

삼방: (구름으로 뛰어오르며)꿀! 꿀! 아유 몸이 무거워서 안 된다. 꿀~ 제길! 염포님한테 또 혼나겠다. 꿀~!

방이 삼형제를 혼쫓내준 마루는 아라와 꼬꼬지에게 돌아온다.

마루: (숨이 차서)헉....헉... 그거 봐...내가...빨리..헉..가겠잖아..헉...헉

아라, 꼬꼬지: (반성하며)미안, 다친 덴 없어?

마루: (숨을 고르며)응, 괜찮아. 저 돼지잡귀들은 여의주에 대해 어떻게 알고 우리를 방해하지? 어쨌든 저들보다 먼저 조각들을 찾아내야해! 어서 다음 수수께끼를 풀자!!

아라, 꼬꼬지: (큰소리로) 네~! 마루님!!

#16. 바닷가

한 편, 빈손으로 염포에게 돌아간 방이 삼형제는 갇은 구박을 당한다.

염포: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이..... 멍청한 것들!!!! 그깟 꼬맹이들을 감당 못하고 이 꼴로 나타나??? (탁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꿀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 돼지 같은 것들아!!

이방: (눈치 없이)형! 꿀꿀~ 우리 돼지 맞는데, 그치? 꿀꿀.

일방, 삼방: (이방의 입을 막으며)닥쳐! 이 돼지야.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나으리~ 꿀!

#17. 울산 어느 바닷가 마을

두 번째 수수께끼인 ‘바다’에 대한 고심 끝에 울산이 접해있는 동해바다 자락을 돌아보던 아라 일행은 귀신고래 회유해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리로 향한다.

#18. 귀신고래 회유해면

귀신고래 회유해면에 도착한 아라, 마루, 꼬꼬지는 방이 삼형제와 염포를 발견한다. 염포는 울산바다에 살고 있는 귀신고래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여의주 조각을 빼앗은 뒤였다.

꼬꼬지: (염포를 보고 놀라며)아니! 너는 월앵 남자와 호동의 원수 염포가 아니냐!

염포: 으하하하. 드디어 만났군. 멍청한 것들! 울산의 바다하면 당연히 고래를 먼저 떠올려야 맞거늘. (비열하게 웃으며)킬킬킬! 이 여의주 조각은 내가 갖겠다. 천계의 문에 어울리는 이는 바로 나지. (아라를 쳐다보며)네년의 부모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갈라놓고 말겠다.

여의주 조각과 함께 유유히 사라진 염포와 방이 삼형제.

아라: (다친 고래들을 발견하며)마루야! 여기 다친 고래들이...! 숨이 너무 약해!

마루: (주먹을 짝 쥐며)염포의 소행이 분명해! 고래들을 괴롭히고 여의주 조각까지 훔쳐가다니...!

아라: 혹시.....? 잠깐만 기다려봐!

불현 듯 해금을 떠올린 아라는 급히 자신이 메고 있던 해금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해금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고래들의 미약했던 생명력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다.

귀신고래: (활기를 되찾으며)와앗...! 점점 아프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아라님! 염포의 갑작스런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눈이 와서 너무 추웠거든요. 다들 추위에 몸이 언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흑흑.....결국 저희가 지키던 여의주 조각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천상에서 저지른 자신의 잘못과 물고기마을의 피해를 떠올린 아라는 제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다.

아라: (약간 당황하며)그, 그래? 그래도 다 나았다니 다행이야!

마루: 이제 괜찮니? 큰일 날 뻔 했구나. 빨리 일행들에게 돌아가렴.

귀신고래: 네. 부디 여의주 조각을 부탁드릴게요.

귀신고래들은 힘차게 헤엄치며 바다로 돌아간다.

꼬꼬지: (다급한 목소리로)어서 염포 일행을 쫓아가자! 여의주 조각을 되찾아야지!

#19. 바닷가

아라와 마루, 꼬꼬지는 서둘러 염포를 쫓기 시작한다. 아라 일행이 여의주 조각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멀리 도망가지 않은 터였다. 염포를 발견한 아라 일행은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마루: 이제 어찌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라: 이러다가 놓치겠어...! 에잇, 이판사판이다!

마루, 꼬꼬지: 아, 아라야...!!!

아라가 갑자기 염포에게 달려들었다.

아라: (염포의 몸에 매달리며)여의주 조각을 돌려줘!

염포: (아라를 내동댕이치며)에잇!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질긴 것들이구나!

염포가 아라를 내동댕이치자 마루와 꼬꼬지는 아라에게 달려갔다.

마루: 아라야! 괜찮아?

꼬꼬지: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며)염포... 네 이놈! 맛 좀 봐라. 호잇!

꼬꼬지가 재주를 부리자 그의 분신들이 생겨나 염포와 방이 삼형제를 둘러쌌다.

꼬꼬지: (자신의 분신들에게 외치며)다같이 공격!!

삼방: (몸을 구부린 채 울며)으아아, 아이고 삼방이 살려!

꼬꼬지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염포는 코웃음을 치며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 휘둘렀다. 그러자 꼬꼬지의 요력이 스르륵 풀려버리고 말았다.

염포: (우습다는 듯이)이런 잔재주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하하. 이 악귀가 되어 구천을 떠돈 이 염포님에겐 어렵겠지!

이방: (의기양양하여)에잇! 우리에게 겁을 주다니 혼썰을 내줘야겠구나!

방이 삼형제는 혼자가 된 꼬꼬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마루는 아라를 조심히 옆에 내려놓은 뒤 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주웠다. 그러자 나뭇가지는 마치 물처럼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창이 되었다. 마루의 신력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마루: (방이 삼형제에게 창을 휘두르며)그만두지 못해!

방이 삼형제: (꼬꼬지로부터 멀리 나가떨어지며)아구구구..

마루: (염포에게 시선을 돌리며)여의주 조각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아라와 꼬꼬지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루가 염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염포는 부채를 휘둘러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무기인 마루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또한 마루는 이무기 특유의 민첩함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물리적인 공격에서 염포는 마루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염포가 쓰러졌고 그와 동시에 염포의 품 안에 있던 여의주 조각이 떨어졌다.

염포: (바닥으로 쓰러지며)크윽..!

쓰러진 염포는 자신의 옆으로 떨어진 여의주 조각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때 마루가 다시 한 번 창을 거세게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염포가 바닥을 구른다.

마루: (창으로 염포의 목을 겨누며)아직도 욕심에 눈이 멀어 조각을 탐하는구나. 내가 너를 염라대왕에게 넘겨야겠다.

그 순간 염포는 자신 앞에 있던 모래를 이용해 부채로 모래바람을 만들었다. 염포는 모래바람으로 마루의 시야가 불투명해진 틈을 타 도망을 쳤다.

염포: (모래 먼지 속에서)크응, 분하다! 내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야. 두고 보자!

모래바람이 멈추고 염포와 방이 삼형제의 모습도 홀연히 사라졌다. 마루는 여의주 조각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조각을 주웠다. 그리고 꼬꼬지와 아라에게 황급히 달려갔다.

마루: (숨을 고르며)애들아 괜찮아?

꼬꼬지: 응! 근데 나, 마루가 싸우는 건 처음 봤어!

아라: (마루의 창을 가리키며)대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마루: (화들짝 놀라며)아! 잠깐 나뭇가지의 모양을 바꾼 것 뿐 이야. (멋쩍게 웃으며)형들처럼 강한 힘은 못쓰지만... 여의주 조각이 하나 둘 모이면서 나도 용의 능력을 갖춰가는 것 같아!

마루가 설명을 마치자 그의 손에 있던 창은 본래의 나뭇가지로 돌아왔다.

#20. 염포의 은신처

마루에게 된통 당한 염포는 아라 일행으로부터 도망을 쳐 자신들의 은신처로 이동한다. 그리고 방이 삼형제와 함께 작전을 변경하기로 한다.

염포: (눈을 번뜩이며)어차피 난 수수께끼가 뭔지도 몰라! 그 멍청한 것들이 조각을 모아서 이 염포에게 바치도록 만들어 주겠어.

일방: (아부를 떨며)물론입죠! 염포 나리께서 직접 뛰어다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요.

염포: 당연하지. 그럼 너는 이방, 삼방과 함께 그것들을 미행하고 오너라. 실패하면... (위협적인 목소리로)그 죄를 너희에게 물을 것이야. 나는 여기서 힘을 회복하고 있겠다.

일방: 저희만 믿어주십시오. 염포나리! 꼭 만족하실만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돼지삼형제 일방, 이방과 삼방은 은신처를 떠나 돼지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여 다시 아라 일행을 추적한다.

#21. 울산 시내

다음은 세 번째 수수께끼인 ‘보석들’의 정체를 찾아야 했다. 내일이면 천계의 문이 열리는 임진(壬辰)날이다. 그 전에 반드시 여의주를 완성해야 한다!

아라 일행은 의심이 되는 장소는 모두 돌아다녀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울산 시내에 있는 은행이었다. 은행이라면 값나가는 보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라 일행이었다. 들키지 않게 변장을 한 방이 삼형제 또한 방해로 피하며 이들의 뒤를 따라간다.

#22. 은행 안

은행으로 들어온 마루는 대기번호를 뽑아 줄을 선다. 그러나 다혈질인 방이 삼형제의 막내 삼방이 계속해서 새치기를 일삼는다. 그렇게 해서 말다툼이 벌어지면 일방, 이방이 나서서 몰래 주머니를 훔칠 심산이었다. 그러나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마루 때문에 삼방은 싸움을 벌일 수 없게 된다.

(자막: ~첫 번째 작전 실패~)

#23. 횃집

점심시간이 되어 아라 일행은 회를 먹으러 가게에 들어선다. 물론 이번에도 방이 삼형제가 있었다. 아라 일행이 회를 먹는 동안 여의주를 몰래 빼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맛있어 보이는 회를 보자 식탐 많은 이방은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만다.

이방: (조심스레 손을 들며)여...여기도 회 한 접시요...!

결국 먹느라 정신이 팔린 것은 방이 삼형제였다.

(자막: ~두 번째 작전 실패~)

#24. 보석 가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꼬꼬지는 거리에서 보석 가게를 발견한다.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보석으로 추정되는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그들은 가게 밖에 나와 이것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상

의한다. 그러는 사이 비열한 일방은 선수를 치기 위해 보석가게에서 도둑질을 감행한다. 그러나 일방은 가게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자막: ~마지막 작전도 실패~)

#25. 울산 시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아라 일행은 다음 목적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마루가 말했다.

마루: (문득 생각 난 듯이)진짜 보석이 아닐지도 몰라! 산에 있는 보석은.... 꽃? 버섯? 과일? 뭐.....그런 게 아닐까??

꼬꼬지: (무언가 생각난 듯 외치며).....과일? 울주 배?!

#26. 배 농장

그들은 가까운 배 농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황금색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배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농장의 주인할머니께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피땀 흘려 키운 배를 모두 잃었다고 한탄한다.

주인할머니: (눈물 글썽이며)어휴.. 얼마 전에 갑자기 눈이 오더니만.... 왜 때도 아닌 눈이여.. 그것 때문에 배도 다 상해서 떨어지고.. 수확도 하지 못혀. 하늘도 무심하시지. 올해 이 배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 자식 같은 것들인데....이 늙은이는 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말이여..

그러자 아라는 갑자기 눈물을 펄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거듭 사과를 한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라를 위로한다.

아라: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흐음, 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흑흑..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그냥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주인할머니: (아라를 안아주며)아가, 네 잘못이 아니여. 그만 울어, 응?

#27. 울산 시내의 공원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 가고, 아라 일행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꼬꼬지: (복잡한 머리를 부여잡으며)도대체 보석이 뭐지??

아라: (한숨을 쉬며)이렇게 고생하며 돌아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다니..

아라 일행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루: (두루마리 수수께끼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보석들의 정체는 못 찾았지만 마지막 단서는 알 것 같아! 첫 번째의 태양빛! 울산의 간절곶이지! 간절곶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하거든! (의기양양해하며)무려 그 유명한 정동진보다도 빠르다구~

아라 일행을 줄곧 미행하던 방이 삼형제는 그들이 간절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방이 삼형제는 이 정보를 염포에게 전하여 칭찬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돌아간다.

#28. 울산의 하늘 위

오랜 시간 울산 시내를 돌아다니느라 녹초가 된 아라 일행은 꼬꼬지의 도움으로 구름을 타고 숨을 돌리며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꼬꼬지: (아라와 마루를 향해 웃으며) 다들 침울하게 있지 말고 바람이나 쐬면서 기분전환 하자~ 보석들은 못 찾았지만 마루 덕분에 마지막 수수께끼는 찾았잖아.

아라: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하지만... 보석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텐데...

아라는 보석에 대해 생각하던 중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배 농사를 망친 농장의 주인할머니를 떠올리며 우울해한다.

마루: (기지개를 펴며)만약 여의주를 못 찾는다면.....참 슬프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이렇게 모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아라와 꼬꼬지를 마주보며)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동굴 안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야. 고마워. 아라야, 꼬꼬지야!

꼬꼬지: (마루의 이야기를 거들며)나도, 나도! 매년 같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한 요 며칠은 정말 재밌었어! (잠시 생각하더니)나는 울산 토박이 도깨비라 이곳을 잘 알아. 그 동안 울산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세월이라는 건 참 무서워!

오랜 세월을 살아온 꼬꼬지가 노인처럼 이야기를 하자 마루와 아라가 킁킁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꼬꼬지는 자신의 이야기에 웃는 마루와 아라를 보며 씩스리워하더니 이내 함께 웃는다.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라는 무언가를 계속 고민하는 듯하다. 입을 열었다 닫기

를 수차례 반복 하지만 결국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아라: (하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애써 웃으며) 그런데 꼬꼬지야. 도대체 저 염포라는 자는 우리 엄마, 아빠를 왜 그렇게 싫어하니?

꼬꼬지: (갑자기 생각난 듯) 아! 그건 말이지~ 옛날 옛적에 우리 수장이 말이야.....

꼬꼬지의 긴 설명이 이어졌고 한참동안 아라와 마루, 꼬꼬지의 즐거운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곧 밤이 깊어왔다. 보석을 찾지는 못했지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서 신이 난 아라 일행은 다음 날을 기약하며 산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바로 그때, 구름 위에 있던 아라 일행은 지상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마루: (의아해하며) 어라? 저게 뭐지?!

꼬꼬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 저건 울산공업단지야! 한번 가볼까? 저 곳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거든.

#29. 울산공업단지 상공

공업단지 가까이 구름을 돌린 꼬꼬지는 울산의 중공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아라, 마루와 함께 야경을 감상했다. 불현 듯 아라는 공업단지의 야경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아라: (아름다운 야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예쁘다.. 마치 보석 같아...!

그 순간 공업단지의 작은 불빛들이 하늘로 모여 마지막 여의주 조각을 만들어냈다. 여의주의 세 조각이 모두 모아져 아름다운 구슬이 만들어지며 울산의 밤하늘을 영롱하게 빛냈다.

드디어 완성된 여의주를 얻은 아라, 마루, 꼬꼬지. 아라는 여의주를 복주머니 안에 소중히 챙기고 꼬꼬지는 물끄러미 이 모습을 지켜본다.

#30. 염포의 은신처

이방: (굉장한 사실을 알아온 양 자랑스러워하며) 염포님!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일방: 그 놈들이 마지막 수수께끼를 알아냈어요! 내일 음..... 어..... 어디더라?

이방: (일방에게 버럭 화내며) 감 얘기 했잖아! 감! 바보야.

삼방: (바보같이 웃으며) 네, 맞아요. 그 애들 내일 아침에 콧감 먹으러 간됐어요.

염포: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감? 콧감? (한 동안 깊이 생각하며) 흥, 간절콧이로구만! ㅋㅋㅋㅋ 좋아. 거기서 가서 그 놈들을 기다리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염포였다.

#31. 돌질산

수수께끼 속 마지막 장소인 간절곶으로 가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돌질산으로 돌아온 아라 일행은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 간절곶으로 떠나기로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녹초가 되어 깊게 잠이 든 아라와 마루. 하지만 꼬꼬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아라의 복주머니 속에 든 여의주를 조심스레 꺼내 밖으로 나간다.

#32. 울산 시내

재빨리 산 아래로 내려온 꼬꼬지는 여의주를 삼켰다. 그러자 꼬꼬지의 몸이 거대한 산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꼬꼬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로, 건물, 공장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33. 돌질산

설핏 잠에서 깬 아라는 무의식적으로 복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손에 잡힌 건 빈 복주머니였다. 화들짝 놀란 아라는 벌떡 일어나 마루를 흔들어 깨웠다.

아라: (다급한 목소리로)마, 마루야! 빨리 일어나봐!!! 여의주가.. 여의주가 없어졌어!

마루: (벌떡 일어나며)뭐, 뭐라고??! (주위를 둘러본다)꼬꼬지도 없어졌어..! 또 염포의 짓인가? 빨리 찾아보자!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꼬꼬지와 여의주를 걱정하며 찾는다. 그 때, 산 아래서 굉장한 소음이 들려온다.

쿵-! 쿵 쿵 쿵!

#34. 울산 시내

소음을 가릴 마루의 소라껍데기를 챙길 새도 없이 아라와 마루는 소란의 근원지로 향한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꼬꼬지가 보인다.

마루: (멍하니 꼬꼬지의 모습을 바라보며)설마! 꼬꼬지가 여의주를 삼킨 거야? 어째서...???

꼬꼬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루. 그런 마루의 귀에는 도시의 굉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도시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거대한 꼬꼬지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 아라와 마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댄다.

아라: (당황하며)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째서 꼬꼬지가...??

마루: (정신을 차리며)그, 그것보다 꼬꼬지를 막아야 해! 인간들이 다치겠어..!

그 때였다. 거대한 꼬꼬지의 몸이 붉게 변하며 꼬꼬지는 횡포를 멈추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꼬꼬지: (괴로움에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으며)으윽, 으아아악!

여의주는 용을 위한 신성한 구슬로 도깨비의 몸인 꼬꼬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라: (마루를 잡은 채로 울먹이며)마, 마루야! 꼬꼬지의 상태가 이상해.

역지로 그 힘을 차지한 꼬꼬지의 몸이 여의주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려는 찰나 마루는 여의주를 파괴해 자신의 오랜 친구인 꼬꼬지의 목숨을 구하려는 큰 결심을 한다.

마루: (마음을 굳게 먹은 눈빛으로)여의주를 다시 조각내 저 힘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겠어!!

마루가 집중하여 기운을 모으자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루는 꼬꼬지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을 향해 번개를 보내어 여의주를 파괴시킨다. 다시 파괴된 여의주 조각들은 더 이상 힘을 발산하지 않았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꼬꼬지는 조각들을 토해낸다.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에서는 꼬꼬지의 마음을 대변하듯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 공장과 건물들의 불길의 제압된다.

꼬꼬지: (서럽게 울며)마루야..... 차라리 날 파괴하지 그랬어! 으흑흑흑.....

꼬꼬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훌쩍이며 자신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35. 꼬꼬지의 회상

아주 오래 전, 꼬꼬지는 도깨비 풍물패와 함께 돌질산 나무에서 살고 있었다. 또 인간들을 좋

아하여, 가끔 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숲에 꽃을 가져다 놓는 등의 잔재주를 부려 놓는 착한 도깨비였다. 그러나 돌질산이 동강나던 날, 도깨비 풍물패 마을의 나무가 파괴되고 그 곳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목숨을 잃는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꼬꼬지만 살아남아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애정은 증오로 바뀌었다. 삶의 터전과 친구들을 모두 앗아간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여의주의 힘을 빌려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다.

#36. 울산 시내

마루: (안타까운 목소리로)내가 여의주를 잃은 그날, 너는 친구들을 모두 잃었구나..... 혼자 그 아픔을 안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울고 있는 꼬꼬지의 두 손을 잡으며)난 네가 있어서 60년을 버틸 수 있었어.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내 친구인 너를 잃을 순 없었어.

꼬꼬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아라는 울산의 하늘 위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연다.

아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미안해 꼬꼬지야. 사실 나는 천계에서 내 마음대로 지상에 눈이 내리게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 네 친구들을 잃게 한 인간들이나, 나나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똑같아. 내가 대신 사죄할게. 정말 미안해..... 너희들과 울산을 여행하며 나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어. 내가 달라진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 둘씩 달라질 거야. 정말 미안해..... 흑흑흑흑.....

꼬꼬지는 아라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꼬꼬지는 마루에게, 아라는 꼬꼬지에게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다.

#37. 간절곶으로 향하는 하늘 위

우여곡절 끝에 천상의 시간으로 임진(壬辰)날이 밝았다. 비장한 표정으로 간절곶까지 이동하는 아라 일행. 마루의 품에는 깨진 여의주 조각들이 있다.

아라: (간절곶을 가리키며)저길 봐! 바다 주변이 붉은데... 곧 태양이 떠오를 것 같아.

마루: 진(辰)시까지 얼마나 남았지?

꼬꼬지: 3분 정도 남았어. 도착하자마자 일출을 볼 수 있을 거야.

#38. 간절곶 앞바다

간절곶에 도착한 아라, 마루, 꼬꼬지. 등대 꼭대기에서 간절곶의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아라, 마루, 꼬꼬지: 와아.....!!

마루: (감격한 목소리로)이 태양이 바로 첫 번째 태양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꼬꼬지: (고개를 숙이며)그러면 뭐해. 이제 여의주는 깨져 버렸잖아...

마루: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난 두려움을 떨쳐 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신나는 모험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해. (아라, 꼬꼬지의 어깨를 잡으며)그리고 지금 너희들이랑 첫 번째 태양을 보는 것도 행복하다구. (미소 짓는다.)

꼬꼬지: (눈물 글썽이며)미안... 미안해... 마루야.. 고마워...

이때, 갑자기 여의주 조각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이내 태양빛을 받아 하나가 되는 여의주.

마루: (놀라며)꼬꼬지야..! 여.. 여의주가... 다시 합쳐졌어...!!

꼬꼬지: (콧물을 닦다가 빛나는 여의주를 보고 같이 놀란다)...!!!!

아라: (폴짝폴짝 뛰며)됐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

마루: 고마워, 애들아... 정말.. 정말 아름답다.

모두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켜켜이 여의주를 낚아채간다.

아라: 누구냐!!

염포: 나다, 염포! (마루를 보며)내가 고작 네 놈 때문에 여의주를 포기할 줄 알았느냐? 천만에!! 난 다친 동안 오히려 완성된 여의주를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막힌 잠복 계획을 생각해냈지. 으하하하하!!

마루: 여의주를 당장 돌려줘!!

본격적인 진(辰)시에 들어서자 천계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염포: 하하, 슬슬 문이 열리는군. 그럼 난 이만. (방이 삼형제에게)여봐라, 이 패배자들을 제압해라! (천계의 문 쪽을 향해 올라간다.)

일방, 이방, 삼방: 예 나으리!!

방이 삼형제는 아라, 마루, 꼬꼬지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마루는 재빨리 이들을 뚫고 염포를 쫓아간다.

일방: (이방, 삼방에게)야, 저 놈 잡아!

꼬꼬지: 잡긴 뭘 잡아! (아라에게 눈빛 신호를 보낸다)아라야!

아라: 응!!

#39. 간절곶 하늘 위

아라, 꼬꼬지가 방이 삼형제를 등대 기둥에 뽕뽕 묶는 동안, 마루는 하늘에서 염포와 숨 막히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마루: (물의 기운을 모으며)염포, 지금이라도 여의주를 내놓으면 용서해 주겠다!

염포: 하! 너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너야말로 얼췌대다가 불의 맛을 보고 싶은가?

마루: 나는 물을 관장하는 용이 될 몸이다!! 너의 사악한 마음을 꺼뜨려주겠어.

염포: (비열하게 웃으며)하하하하!! 웃기는군!! 고작 이무기 주제에... (불꽃을 만들며)네 놈이 용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흐아압!!! (불덩어리를 날린다.)

마루: 이야아!! (물 기운 덩어리를 날린다.)

두 덩어리는 충돌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고, 마루와 염포는 흠먼지 자욱한 바닥으로 떨어진다. 먼저 일어난 염포는 갑자기 아라를 낚아챈다.

아라: (염포에게 잡혀 발버둥 치며)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놓지 못해?!

마루: 쿵쿵, 쿵쿵... 으.. (괴로워하며 가까스로 고개를 들고)....염포!!

염포: 이래도 날 공격할 수 있을까? 하하하하, 잘 있어라!! (다시 하늘로 오른다.)

마루: 큼.. 안 돼...!!! (힘겹게 일어나 뒤를 쫓으며) 아라야...!

아라: (잡혀 올라가면서도 계속 저항하며)이거 봐! 네가 여의주를 가졌다고 해서 천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염포: ㅋㅋ, 이무기 따위도 여의주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저런 허약한 이무기보다는 이 몸이 들어가는 데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 (광기어린 목소리로)그래야 너희 엄마도 더 기뻐할 테고 말이야!! 크하하하하하!!!

어느덧 천계의 문 가까이에 다다른 염포. 그러나 마루는 한참 뒤에 있다.

염포: (아라를 데리고 문을 향해 돌진하며)으하하하!! 기다려라, 월앵!! 호동!!

아라: 멈춰!! 제발!!!

염포: 하하하하... (갑자기 누군가에게 타격을 맞는다.)으!!

갑자기 누군가 옆에서 염포의 팔을 거세게 쳐냈다. 감투를 써서 몸을 안보이게 하고 따라온 꼬꼬지였다. 그 바람에 아라와 여의주는 아래로 떨어진다.

염포: (분노에 차서)이 도깨비 새끼가!!!

꼬꼬지: (한심한 듯)옛날에 우리 수장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

염포: 그래.. 생각났다. (비열하게 웃으며)그 뒤로 나는 도깨비를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짓밟았지. 너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줄 알아라! 하!!

꼬꼬지: (결연한 목소리로)좋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염포: ??...

꼬꼬지: (달려들며)너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다!!

꼬꼬지는 그대로 달려들어 염포를 강하게 붙잡는다. 그리고는 함께 천계의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

염포: 으아아! 이거 놔!! 이 미친 도깨비야!!

꼬꼬지: (모든 것을 초월한 얼굴로)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이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염포: ...!!!!

꼬꼬지: ...그대로.. 재가 되는 거야... (미소 짓는다.)

염포: (괴로워하며)으아아아악!!!

#40. 간절곶 앞바다

한편 기절한 아라와 여의주는 동시에 간절곶 앞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루: 아라야!!

마루는 떨어지는 아라를 재빨리 구하여 땅에 내려놓는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아라.

아라: 으.. 여긴....?

마루: (다정하게)이제 괜찮아. 꼬꼬지가 너랑 여의주를 염포한테서 떼어 놓았어. 이제 내가 도와주러 올라가야 해.

아라: 나도 갈래. 나도 꼬꼬지를 도울 거야!

마루: 아니야. 위쪽은 우리에게 맡기고 너는 저 바다에 떨어진 여의주를 찾아줘.

아라: 여의주? 설마 너.. 또 여의주를 버리고 날 구한 거야...?

마루: 너희들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없어. 그리고 이번엔 깨진 게 아니니까 찾기만 하면 되잖아? (웃으며)나, 너희를 위해서라도 꼭 용이 될 거야. 그러니 걱정 마.

아라: (따라 웃으며)바보...

갑자기 세찬 바람소리와 함께 광기어린 웃음소리가 들린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내려온 염포였다.

마루, 아라: 염포...!!

염포: (옷에 묻은 재를 털어내며)네 놈들, 아주 끈질긴 친구를 뒀더구나. 날 붙잡고 어찌나 놔주질 않던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ㅋㅋㅋㅋ.

마루: 그게 무슨 소리야!

염포: 글썄 그놈이 나랑 같이 천계의 문에 들어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같이 죽을 뻔했던 말이다. (또 다시 광기어린 웃음)

마루: 설마.. 너... 꼬꼬지를...!!

염포: (히죽 웃으며)난 죽이려 한 적 없다. 그 놈이 나와 같이 죽으려 해서 막아낸 것 뿐!! 킬 킬...!!!

아라: (눈물을 글썽이며)뭐.....? 꼬꼬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마루: (분노하며)염포... 이 나쁜...!!

염포: 어쨌거나 나는 다시 여의주를 찾겠다. (비열하게 웃으며)어쨌든 내 인생에 도깨비들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

마루: (벌떡 일어나서)그렇게 둘 순 없어!

마루는 여의주를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다. 염포 또한 뛰어든다. 아라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아라: 꼬꼬지야... 꼬꼬지야... 흑....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라. 흐려진 하늘에서는 세차게 비가 오기 시작했다.

#41. 간절곶 바다 속

넓은 바다 속에서 마루와 염포는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저 멀리 여의주가 보이자 마루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쳐 간다. 그러나 지나가던 큰 물고기 떼에 막혀 다시 여의주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바다 밖에서는 비바람도 불어 닥치고 있어 파도가 거세다.

천계의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었다. 이제 진(辰)시가 끝나기까지 삼십 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42. 간절곶 앞바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은 아라. 이내 결의에 가득 찬 표정을 짓는다.

아라: (비장하게)꼬꼬지의 죽음이.... 마루의 우정이 헛되이 끝나도록 두지는 않을 거야...!!

아라는 메고 있던 해금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한다. 아라는 비를 맞으며, 아름답지만 강한 목소리로 바다에게 말 걸듯이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아라: (눈을 감고)라라.. 라... 라라... 라라라....

#43. 간절곶 바다 속

바다 속에도 아라의 노래와 해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윽고, 깊은 곳에서부터 물보라가 올라온다. 물보라는 이내 여의주를 빨아들여 큰 소용돌이로 변한다.

염포: (당황하며)이..이건 또 뭐야?!

마루는 소용돌이 속으로 헤엄쳐 간다. 마루가 가까이 갈수록 여의주는 빛을 발한다. 드디어 여의주를 잡는 마루.

마루: (기쁜 표정으로)됐어...!!

#44. 간절곶 앞바다

비가 그친 바다 위로 성스러운 한줄기 빛이 올라온다. 뒤이어 늙은 용의 모습을 한 마루가 수면 위로 솟구쳐 나온다.

아라: (감격에 겨워)마루야! 해냈구나!!

마루: (다소 급박하게)응!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내 등에 타!

급히 아라를 등에 태우고 천계의 문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마루. 그러나 마루의 꼬리 끝에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염포가 매달려 있었다.

염포: 크... 크악.. 어딜 가려고!! (눈을 부릅뜨고)나도.... 나도 올라 갈 거야!!

마루: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 다 끝났다고!!

염포: 아직이다!!! 난 아직...!!!!

그러나 용솟음하는 마루의 강한 몸짓에 염포는 결국 바다로 떨어지고 만다.

염포: 으아아아아.....!!! (점점 멀어져가는 목소리)

#45. 간절곶 하늘 위

천계의 문은 거의 닫혀가고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문으로 달려가는 아라와 마루.

아라: 거의 다 왔어! 힘 내, 마루야!!

마루: 조금만.. 조금만 더...!!

아라, 마루의 눈앞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진(辰)시가 끝나기 직전에, 마침내 천계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46. 천계

아라와 마루가 올라오자, 이를 지켜보던 천계의 신들은 환호한다.

월앵, 호동: (두 팔을 벌리며)아라야!!

아라: (마루 등에서 내리며)엄마, 아빠!!! (달려가 월앵과 호동에게 안긴다)

먼저 올라와 있던 무룡산과 가지산의 두 형들도 마루를 맞이한다.

무룡산 용: (마루를 안으며)장하다, 우리 막내!!

가지산 용: 우린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마루를 쓰다듬으며)정말 대단했어!

마루: (감격에 겨워하며)정말 고마워, 형들...

마루의 승천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는 아라와 마루를 만나기 위해 행차하였다.

보좌관 신: 옥황상제님 납시오~!

모두가 엮드린 가운데, 아라와 마루는 옥황상제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마루: (머리를 조아리며)그간 강녕하셨습니다.

옥황상제: 그래, (인자한 목소리로)네가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기쁘지 않을 수 없구나. 잘 왔다.

마루: (미소 지으며)감사합니다.

옥황상제: (아라를 보며) 너도 잘 다녀왔느냐?

아라: 네. (머뭇거리며)저...

옥황상제: (짐짓 모르는 체 하며)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아라: 옥황상제님과... 여기 계신 모두에게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얼굴로 쳐다본다. 아라는 조심스레 일어나서 말을 이어간다.

아라: 그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절궁에 들어가 일지를 조작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땅에 내려가서도 벌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구요. 그런데 마루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저는 땅에 사는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장난으로 한 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파괴를 멈추고, 푸르고도 생명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저도 진정으로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방으로 꾸벅 인사하며)이제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정말 달라질게요. 모두들 지켜봐 주세요.....!!

옥황상제: (지그시 웃으며)톡톡히 잘못을 뉘우쳤구나. 그만하면 됐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 번 더 믿어 보기로 하겠다.

아라: (감격하며)아... 감사합니다...!

옥황상제: 이보게, 계절궁 감관.

계절궁 감관: 예.

옥황상제: 오늘부터 아라를 계절궁 보좌관으로 임명하게. 어린 나이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게야.

계절궁 감관: 예, 차근차근 가르쳐보겠습니다.

아라: 으흠.... 옥황상제님...! 정말 감사해요!! (와락 안긴다.)

옥황상제: (뿌듯해하며)어허~ 나 말고 계절궁 감관에게 감사해 하거라~!

아라: 감관님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곳곳에 인사하며)열심히 할게요!!!

월앵: (호동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고 미소 지으며)내 딸 아라야... 장하다.

옥황상제: 또한, 염라대왕에게 아직도 저승에 가지 않은 악귀 염포를 잡아들이라고 하여라. 그는 지옥 가장 깊은 곳에서 천 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좌관 신: 예, 분부 받들겠습니다.

아라가 마루를 본다. 마루도 아라를 본다. 마주본 둘은 씨익 웃는다.
천계사람들 모두가 박수친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된다.

#47. 1년 후 - 천계 사계궁

사계궁 보좌관 옷을 입은 아라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다.

아라: (기지개를 켜며)으드드~ 끝났다...!

사계궁 감관: 수고했다. 하루 종일 붙어 앉아 가을비 내리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아라: 네에... 그래도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요. 헤헤.

사계궁 감관: 오늘 밤은 내가 관리할 테니, 어서 들어가.

아라: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48. 천계 거리

집에 가던 아라는 땅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멈춰 선다. 옆에는 일과를 마친 마루가 있었다.

아라: (마루의 어깨를 툭 치며)마루야! 뭐해?

마루: 어, 아라야. (웃으며)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아라: 무슨 생각? 형들이랑 울산 잘 지키는 생각?

마루: (추억에 잠긴 얼굴로)응. 그리고 꼬꼬지 생각도..

일몰을 구경하던 아라의 표정이 조금 차분해진다.

아라: (나직한 목소리로)우리가 꼬꼬지를 위해서 둔질산 공원에 세워준 탑 있잖아. 오늘 보니
까 사람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더라. 막 빛이 나던데? 사람들은 이제 달라졌어.

마루: 그래.. 네 말이 맞아. 작년에 꼬꼬지가 어질러 놓은 곳도 깨끗하게 복구됐더라.

아라: (미소 지으며)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거야. 신도, 자연도, 인간도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마루와 아라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는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울산의 해질녘 하늘 위로 빛나는 은하수가 흐르고, 아래에는 공업단지의
보석 같은 조명들이 지상을 수놓고 있다.

세 마리 용의 모습을 한 구름 조각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끝>